

| | 수 요 예 배 | 금 요 예 배 | 대 청 예 배 |
|---------|--------------------|-----------------------|-----------------------|
| 사 회 | 김태형 목사 | 김태형 목사 | 이지용 청년 |
| 설 교 | 김태형 목사 | 김태형 목사 | 김태형 목사 |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유태영 집사 | 사도신경 합심기도 | 사도신경 박성현 청년 |
| 기 성 경 봉 | 사6:6~13 이사야의 소명 | 딤후3:16~17 성경의 절대권위 | 딤후3:16~17 성경의 절대권위 |
| 설 교 소 | 323장 설 교 자 | 323장 설 교 자 | 말씀 나눔 사 회 자 |
| 설 교 자 | 설 교 자 | 설 교 자 | 설 교 자 |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점심식사 후 13:10분에 중직자 회의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 6월 중 토요일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3.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사회자를 세울 계획입니다.
4. 주말(토, 일)은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합시다.
5. 교회 행사 사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추천 바랍니다.
6. 자원한 교회 청소구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백석교회 카페 <http://cafe.daum.net/..daumchurch>

예배담당 및 봉사

| 구 분 | 주일예배기도 | 수요예배기도 | 구 분 | 대청예배 |
|------------------|----------|--------|-------------------|------------------|
| 다 음 주 예 배 위 원 | 김태현 안수집사 | 김재희 집사 | 사 회 기 도 | 선태희 청년 이지용 청년 |
| 사 회 | 김태형 목사 | 피 아 노 | 김언약, 전소연 청년 | |
| 안 내 | 김종애 권사 | 헌 금 | 김영현 장로 · 김태현 안수집사 | |

※ 주방봉사06월07일 : 유혜경 집사
 ※ 주방봉사06월14일 : 장정숙 권사

예배시간안내

| 구 분 | 예 배 시 간 | 구 분 | 예 배 시 간 |
|-------------|---------------|-------------|---------------|
| 주 일 예 배 | (일) 오전 11시 | 수 요 예 배 | 오 후 8시 30분 |
| 오 후 찬 양 예 배 | (일) 오후 1:30분 | 금 요 예 배 | 오 후 8시 30분 |
| 학 생 예 배 | (일)9시30분 각예배실 | 새 벽 예 배 | 새 벽 5시 30분 |
| 유치부(태영아)예배 | (일)10시10분 유아실 | 대 학 청 년 예 배 | (토) 오후 8시 30분 |

창립일 2008. 5. 18.

제19권 제 23호.2026.06.0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 주 일 예 배 | 오 전 11시 | 설 교 | 사 회 |
|-------------|------------|--------|--------|
| 오 후 찬 양 예 배 | 오 후 1시 30분 | 김태형 목사 | 김태형 목사 |

- 개 회 송 영 찬양대
- * 찬 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 교 독 문 45.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 * 찬 송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 대 표 기 도 김영현 장로
- 받 을 말 씀 창5:28~31
- 찬 양 대 《 평생에 부를 노래 》
- 설 교 노 아
- 헌 금 / 찬 송 323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성도의 교제 교회소식 및 새 가족 환영
- * 주 기도문송 635장 / 하늘에 계신
- * 축 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섭니다.



광양백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노아 (창5:28~31)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삽질을 우리와 같이 판단하셨으면 지금쯤 세상은 남아나질 않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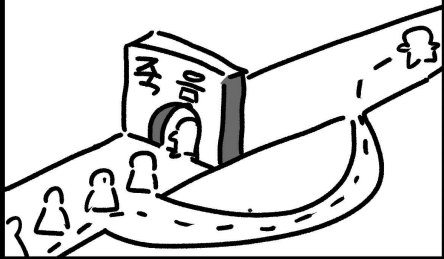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보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은 살면서도 예비하신 부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이가 죽음을 맞이했으나 오직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 (창5:28~31)

사람이 죽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볼 땐 세상의 진리 중 하나이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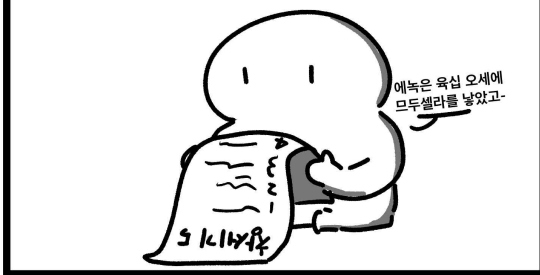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잊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올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믿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